

어긋난 상생

광주·전남상생발전회의의 취소 ... 군공항 이전·한전공대 등 현안 차질 우려

광주시와 전남도가 민선 6기 들어 다시 맺어진 상생의 끈을 더 바짝 조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에너지밸리 특별법 제정, 호남고속철도 2단계 무안공항 경유 등 지역 발전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조치들이 구체화되고 있으나 한전공대 설립, 군공항 이전 등의 민감한 과제에 대해 여전히 매듭을 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9일로 예정된 '광주전남상생발전위원회 2017년 하반기 회의'마저 연기되면서 광주시와 전남도가 상생을 위한 적극적인 대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관련기사 3면〉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시·도는 민선 6기 들어 발족한 '광주전남상생발전위원회 2017년 하반기 회의'를 이날 오후 5시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회의에는 윤장현 광주시장과 이재영 전남지사 권한대행을 비롯해 대학총장, 시·도의원, 각계 전문가 등 상생발전위원회 2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었다.

이들은 이날 회의에서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한전공대 설립, 국립 심혈관 센터 건립, 국제수목비엔날레 협조 등 신규 협력과제를 상정해 논의하고, 그동안 추진한 협력과제들의 진척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최근 에너지밸리 특별법 제정, 호남고속철도 2단계 무안공항 경유 등 지역발전의 호기가 되는 조치가 잇따르면서 이번 회의에서 한전공대 설립, 군공항 이전 등 현안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역민의 기대가 높았다.

하지만 회의 전날인 지난 28일 오전 광주시 담당자가 전남도에 윤 시장 불참을 통보했다. 윤 시장이 다른 일정이 있어 박병호 행정부시장이 대신 참석하기로 했다는 내용이었다.

전남도는 발각 뒤집었다. 지난 6월 실무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시·도 기획조정실장이 주요 협력과제의 의견 조율도 마친 상태였다. 전남도는 회의 참석자들과 긴급협의 끝에 윤 시장이 참석가능한 일정으로 위원회 회의를 연기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하기로 한 전남도 주

천 자문위원들은 강한 불만을 터뜨렸다. 군공항 이전 문제 등 갈등이 우려되는 민감한 현안들이 산적한데 시·도 수장이 해법 찾기에 소극적이라는 것이다.

전남도 추천 한 자문위원은 "군공항 이전·한전공대 설립 등 지역 민감현안에 대해 통 큰 결단을 원하는 지역민들의 요구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상생발전이 아니라 오히려 반목만 부르게 됐다"고 비판했다.

권옥 전남도의회 부의장은 "광주·전남 상생발전은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며 "한쪽의 일방적인 승리가 아닌 서로를 배려하고 사업의 효율성과 균형발전을 고려해 시장·지사가 결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윤장현 광주시장은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역 현안 법안 통과와 내년 예산 배정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비상 대기 중이며, 광주전남상생발전위원회에는 실무진 차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어 시장이 참석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북 ICBM급 미사일 도발 한·미·일은 알고 있었다

軍, 발사 6분만에 가상 도발 원점 정밀타격



軍, 현무-2 탄도미사일 발사
북한이 평안남도 평성 일대에서 미사일을 발사한 29일 새벽 동해안에서 실시된 육해공 미사일 합동정밀타격훈련에서 육군이 북한의 도발 원점을 고려해 지대지미사일 현무-2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북한이 29일 새벽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으로 추정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관련기사 2면〉

이번 미사일은 고각으로 발사되어 고도가 4천500km에 달해 정상적으로 발사하면 사거리가 1만km 이상일 것으로 분석된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3시 17분경 북한이 평안남도 평성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장거리 탄도미사일은 고도 약 4천500km, 예상 비행거리는 약 960km"라고 밝혔다.

군은 이 미사일의 세부 제원에 대해 미국과 정밀 분석 중이다.

미사일 비행거리는 고도의 2~3배에 달하기 때문에 최대 1만km가 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일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이 고각으로 발사한 미사일 가운데 이번이 가장 높았고, 고도 4천km를 넘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9월 15일 발사한 '화성-12형'은 최대고도 770여km로 비행거리는 3천700여km였다.

미국과 일본도 이날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ICBM급으로 평가했다.

로버트 매닝 미 국방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미국은 북한이 ICBM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1발을 발사한 것을 탐지했다면서 "이 미사일은 북한 사인리에서 발사돼 1천km를 비행한 후 동해상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 낙하했다"고 밝혔다.

일본 방위성도 북한 미사일을 ICBM급으로 분석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지난 9월 15일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을 일본 상공을 통과해 북태평양상으로 발사한 이후 75일 만이다. 북한이 평성 일대에서 미사일을 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1번째 미사일 도발이다.

우리 군은 이와 관련, 북한의 미사일 발사 후 6분만에 도발에 대응한 정밀타격훈련을 했다. 합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오늘 오전 3시23분부터 3시44분까지 동해상으로 적 도발 원점까지의 거리를 고려해 지·해·공 동시 탄착개념을 적용한 미사일 합동 정밀타격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격훈련에는 육군의 미사일부대, 해군의 이지스함, 공군의 KF-16이 참가했다.

/연합뉴스

하나된 상생

민주당·국민의당, KTX 무안공항 경유 합의 ... "내년 예산에 반영" 선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29일 호남선KTX 2단계사업 노선에 대해 '무안공항 경유'로 뜻을 모으고 관련 사업비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공개 선언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최근 예산중개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이어 집권여당과 국민의당이 손을 맞잡으면서 호남선KTX 2단계사업 관련 정부의 확정발표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호남권 KTX 공동정책협의회'를 열고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다.

양당은 합의문을 통해 호남선KTX 2단계 사업은 광주 승정에서 무안공항을 경유해 목포에 이르는 노선이 가장 현실적이고 적합하다고 밝혔다. 지역균형발전 및 충청권과 전북지역에서의 무안공항 접근성 제고 측면에서 무안공항 경유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 방안이 무안공항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양 당은 정부가 검토 중인 계획안을 변경할 것을 촉구하고 관련 예산이 내년 정부 예산에 편성되도록 하기로도 합의했다.

현재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비는 설계 등에 필요한 154억원으로 알려졌다. 무안공항 경유 노선 확정 여부에 따라 증액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남도 방안에 따르면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은 광주 승정에서 목포까지 77.6km 구간이다. 국토부는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을 2014년 9월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전남도는 광주 승정, 나주, 무안공항, 목포 구간 가운데 기존 철로 33.7km를 개량해 고속화하고 43.9km에 신선을 깔아 이동 편의를 높이고 무안공항도 활성화한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기재부는 광주~목포 66.8km의 기존 선을 고속화하고 무안공항으로 가는 지선 16.6km를 신설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8월 KDI를 통해 사업계획 작성성 재검토 용역에 들어갔으며 조만간 확정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광주 환경미화원들의 '한숨' ▶6면

도시재생 모범 사례 - 프랑스 ▶18면

'10억 팔' 한기주 삼성 이적 ▶20면

사랑과 감사의 63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7]
가톨릭전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무안출발 ✈ 일본, 다낭 직항 전세기

2018년의 시작도 조이투어와 함께 하세요!
이제 여행의 시작점은 가깝고 편리한 무안공항입니다.

2억원 영업보증보험 가입업체
조이투어
JOY TOUR CO., LTD.
여행 길이 즐거운 동반자!!!
대표전화 : 062-234-3222
FAX : 062-234-3141
광주광역시 동구 구성로 180(금남로57가)
NAVER 조이투어 검색 http://www.joytour.kr
일본여행 / 국내·제주여행 / 해외여행 전문여행사 조이투어



대표이사 최 금 환

무안 ↔ 일본 기타큐슈(아마구치)

2017. 11. 27(월) ~
주 3회 출발 / 화요일(3박4일) 금, 일요일(2박3일)

운항스케줄
무안(18:00) → 기타큐슈(19:10)
기타큐슈(19:40) → 무안(21:00)

[선착순 특가상품]
아마가세 펜션(1박)+특급호텔(1박) 499,000원~
[실속] 북 큐 슈 호텔 599,000원~
[품격] 북 큐 슈 료관 699,000원~
[품격] 아마구치 료관 699,000원~
※ 일본 여행 상품에 따라 포함사항과 불포함사항이 다르오니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무안 ↔ 시라하마(와카야마, 오사카)

오사카 남쪽의 아름다운 해변과 온천으로 유명한 와카야마

2018. 1. 5(금) ~ 주 3회 출발 / 일요일(3박4일) 수, 금요일(2박3일)

운항스케줄 무안(13:00) → 시라하마(14:40) / 시라하마(15:30) → 무안(17:10)

[특가상품(수요일 출발)] 와카야마, 오사카, 나라, 교토 669,000원~
[품격] 오사카, 와카야마 798,000원~
[고품격] 오사카, 와카야마, 나라, 교토 1,198,000원~
[골프] 시라하마, 와카야마 36홀 899,000원~

무안 ↔ 가고시마

검은 모래찜질과 사쿠라지마 화산을 즐길 수 있는 일본 남쪽의 아름다운 고장!!!

2018. 1. 18(목) ~ 주 3회 출발 / 월요일(3박4일) 목, 토요일(2박3일)

운항스케줄 무안(16:00) → 가고시마(17:20) / 가고시마(18:00) → 무안(19:20)

[특가상품(목요일 출발)] 가고시마(이브스키, 치라, 미야자키) 669,000원~
[품격] 가고시마, 가리시마, 이브스키 898,000원~
[고품격] 가고시마, 가리시마, 이브스키 1,148,000원~
[골프] 가고시마 36홀 899,000원~

무안 ↔ 다낭 · 후에 · 호이안

2018. 2. 2(금) ~ 5. 18(금)
주 2회 출발 / 매주 화, 금요일 출발

화 출발 무안(08:40) → 다낭(11:15) / 다낭(14:40) → 무안(20:30)

금 출발 무안(21:35) → 다낭(00:10) / 다낭(01:50) → 무안(07:40)
※ 요금은 호텔 숙박금 기준

[실속] 다낭 · 후에 · 호이안
3박4일(화) 799,000원~ / 3박5일(금) 899,000원~

[노팁 · 노음선] 다낭 · 후에 · 호이안
3박4일(화) 1,049,000원~ / 3박5일(금) 1,149,000원~

[노팁 · 노음선] 핫스프링온천+바나산국립공원+호이안야경
3박4일(화) 1,049,000원~ / 3박5일(금) 1,149,000원~

※ 다낭 여행 상품에 따라 포함사항과 불포함사항이 다르오니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 양국정부인허가조건 ※ 운항스케줄이 항공사 및 천재지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출발 날짜와 인원 수에 따라 상품 가격이 다르오니 홈페이지 및 전화상담을 통해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 기획여행 보증보험 가입 업체 등록번호 : 제동다2003-1호
◆ 공동조인 : 여행권비 1인 기준, 여행지보험 가입(여행비용 : 1만원, 국내여행 5만원), 관광진흥개발기금, 공항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 교통편 : 항공 및 선박, 전열버스 / 전 지역 ◆ 상가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억원 영업보증보험 가입 / 여행금제 기입 업체 ◆ 예약시 계약서(취소 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비없음(단, 기사/가이드, 봉사료, 선박관광, 각종 비자비용 별도) ◆ 최소 출발인원 : 상황에 따라 다름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투어